

# 9월 초가을밤 대중음악 향연

내달 5일 전주 레드피아노 '2025 라라라 온'  
시나·이상한 계절·노야 등 무대 위에 올라



라라라온 포스터

바람이 산성하게 부는 9월 초, 전주의 작은 음악 공간이 아름다운 노래로 물든다. 조금은 낯설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작지만 진한 감동의 무대. 전주 레드피아노가 준비한 대중음악 공연 '라라라 온(LALALA ON)'이 오는 9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전주 시민의 가슴을 두드린다. '라라라 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고, 전국의 소규모 공연장과 다양한 장르의 인디뮤지션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무대다. 이번 무대는 대형 공연장에서 볼 수 없고 관객과 뮤지션이 서로의 호흡을 가까이 느끼는 이 따뜻한 공간은 음악이 우리 곁에 얼마나 소중한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공연이 열리는 레드피아노는 전주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깃든 음악이 흐르고, 작은 무대에서 빛나는 뮤지션들의 진정성이 관객의 마음에 스며드는 곳. 바로 이곳에서 전주 시민을 위한 소규모 음악축제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는 총 세 팀의 뮤지션이 오른다. 각기 다른 결을 지녔지만, 공통적으로

'진심'을 노래하는 이들이다. 첫 번째 팀은 솔로 아티스트 '시나(Xina)'. 포크와 재즈를 넘나드는 감성적인 음색으로, 깊은 밤의 고요를 담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녀는, 한 사람의 고백처럼, 또는 오래된 기억처럼 무대를 채운다. 그리움과 따스함,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이 그녀의 노래에 스며 있다. 두 번째 팀은 '이상한 계절'(김은총, 박경재)이다. 모던 포크와 포크팝을 기반으로 한 이 듀오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이상한 계절' 같은 순간들을 담담하면서도 섬세하게 노래한다.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들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들의 음악은 관객에게 조용한 위로를 전할 것이다. 마지막 무대는 '밴드 노야'(이병진, 이승준, 정용훈)의 차례다. 펑크록의 질감과 밴드 사운드의 거침없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들은, 일상의 관태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청량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젊음과 저항, 자유와 열정. 밴드 노야는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의 감정을 전하며,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번 '라라라 온' 전주 공연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이유가 된다. 공연은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만호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1부 '강패와 장구' (11)

#### 건달

- 오상근 -



평범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방귀소리로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를 붙여서 말이다. 조사만 받으면 끝이나 하면 그게 아니다. '벌단'으로 분류되면 관사가 사건기록을 쳐다볼 것도 없이 바로 구속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 앞에서 플라나 사이다를 마시고 트림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벌단 소속 건달은 워낙 교도소 단골이다 보니, 아무 때나 들어가도 제 밥은 찾아먹는다. 동식이 한참 미친개처럼 뛰어다니던 20대 무렵 교도소를 제집처럼 들락날락할 당시, 전주교도소의 실정을 살펴보자. 전주교도소는 소위 중범교도소다. 쉽게 말해 마법에 별 2개 이상은 달아야 수용될 수 있는 상급 교도소라는 것이다. 미결 사동은 1사동과 2사동으로 나뉘어 있었다. 1사동은 전주월드컵과 2사동은 전주나이트파가 자리하고 있었다. 물론 전주오거리파와 중앙시장파, 타워파, 북대파도 있었지만 월드컵이나 나이트에 비해 세력이 작았으므로 분산되어 있었다. 월드컵과 나이트가 분산된 이유는 전주의 양대 건달 조직이었으므로 두 조직이 사사건건 충돌했기 때문이다. 남원 솔벳파와 한 가족파도 같은 이유로 1사와 2사로 나뉘어 있었고, 익산의 역전파와 구시장파도 역시 분리되어 있었다. 군산의 백악관파는 군산교도소를 주름잡고 있었다. 정읍 선라이트파도 전주교도소에서는 먹어졌다. 강동식이 동지를 둔 고창의 건달 조직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조직만큼은 아니어도 이름을 대면 어어 거기, 할 정도 알아졌다. 고창이라는 지역이 누구든 와서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건달들은 사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이가 아니면 다들 친분을 쌓으며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는 모양새로 감방생활을 했다. 이런 협조가 사회에 나가서도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모든 감방의 방장은 건달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역을 하는 공장들의 반장 또한

건달이 맡고 있었다. 교도소 측은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건달들에게 먹잇감을 던져 주워 가끔적 사교를 치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건달들은 그들의 세력으로 감방이나 공장의 다른 재소자들은 효율적으로 통솔했다. 사실 각 사동이나 공장에 수용된 재소자가 대략 100여 명에서 150여 명이 되었으므로 교도관 한두 명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았는데, 교도관의 역할을 건달들이 대신해주고 있었다. 즉 건달들이 교도관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그 효율성을 이용하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교도소 내에서 건달들 세계도 군대나 다른 남자를 그룹과 똑같다. 센스가 있고 빠릿빠릿하고, 운동을 잘 하는 놈은 인정받는다. 세력이 약한 조직의 건달이라 해도 인정을 받는 것이다. 고창의 옆 마을인 정읍의 선라이트파는 은근히 동식을 자가를 세력으로 포섭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90년대 초중반 즈음과 고창, 부안의 건달들은 한 놈씩 서울로 올라가 터전을 잡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나야버리'가 형성되면 고향 후배들을 끌어올려 세력을 키웠다. 정읍의 선라이트파는 세력을 키워 서울에서 광주지역 조직과 맞설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기까지 했다. 하여튼 조직 생활도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길을 들어서다보니 그 길로 들어서게 되고 여차피 들어서길 걸, 먹고 살 길이나 마련하지는 차원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합법적인 사업과 불법적인 일을 겸해가면서 먹고 사는 건데, 그 비즈니스에 사명을 죽이는 일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다. 살인은 조직에 치명적이다. 잘못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 정읍에서 선라이트파와 맞서고 있던 역전파는 사립을 죽임으로써 조직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다.

## 주말·공휴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서 거리공연 즐기러

내달 28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서  
함께 즐기는 '거리문화공연' 선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지역 예술인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거리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사진은 미술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지역 예술인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거리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박물관을 찾는 시민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전통 국악과 창작 국악, 저글링, 마술, 통기타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됐으며, 특히 박물관 공간 특성을 살린 소규모 현장 공연이어서 관객들이 무대와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거리문화공연이 무더운 여름과 초가를 주말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박물관이 지역 문화와 예술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박물관 누리집(<https://museum.gunsan.go.kr>)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산=김만호 기자

## 신인 연주자들의 특별한 무대 | 전주시립교향악단 데뷔콘서트, 22일 소리문화전당서

전주시립교향악단은 22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회에서 '데뷔콘서트'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신인 연주자들에게 오케스트라의 협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음악가들이 재능을 펼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자회는 이화여대 음대 대학원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전재성이 맡는다. 이날 '데뷔콘서트'는 베버의 '마탄의 사수 서곡'을 시작으로 △디터스도르프의 '터베베이스 협주곡 E장조' (터베베이스 도의진) △베



의 여인 중 '다시 보느냐 오, 사랑스러운 곳

토벤의 '피아노협주곡 5번 E-flat 장조 황제' (피아노 두몽준) 등 신인 협연자들의 열정과 기량을 만날 수 있는 레퍼토리로 구성됐다. 이어 △브람스의 '너 이상 당신에게 가지 않으리' △벨리니 오페라 '무용수'의 여인 중 '다시 보느냐 오, 사랑스러운 곳' 이어 (베이스 정주영)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 작품35' (바이올린 이예솔)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져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풍성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연은 유망한 젊은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기회"라며 "시민들이 수준 높은 연주와 신선한 에너지가 가득한 무대를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 2026 문화공간 '소소담' 기획전시 작가 모집

전북여성가족재단,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선정 시 전시실 대관 무료 제공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2026 문화공간 '소소담(談)' 기획전시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단 1층에 마련된 '소소담(談)'은 매달 새로운 작가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2016년 4월 개소후 이래 현재까지 도내 400여 명의 작가와 2,000

여 점의 작품전시로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모는 참신한 시각예술 작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개인작가(신진작가 포함) 또는 단체(그룹)로,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사진, 서예 등 시각예술 전 분야의 창의적 작품 전시가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며, 접수는 이메일(edu@jwcre.kr) 또는 방문 접수(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38) 하면 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재단 내 문화공간 '소소담(談)' 전시실 대관이 무료로 제공되고, 전시 리플릿 및 배너 제작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전정희 원장은 "전시 작가 모집이 도내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이 도민의 일상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AI 사업 추진단 발족

첨단 기술 활용 태권도 진흥 선도  
버추얼 태권도·증강현실 등 추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박중현)은 '인공지능(AI) 사업 추진단'을 발족, 태권도 진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인공지능 사업 추진단' (이하 추진단)은 신성일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실국장과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추진단은 태권도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과 접목한 혁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버추얼 태권도 시스템 고도화 및 '2027년 이스포츠(e-스포츠)올림픽, 태권도 종목' 반영 지원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기반 태권도원 '체험관' 콘텐츠 강화 △태권도원 인공지능 해설 및 통역 시스템 도입 추진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태권도 선수 훈련 지원 등이다. 추진단 초기에는 현재 태권도원에서 운영 중인 '체험관' - 증강현실,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강화에 집중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태권도원 관광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세계태권도연맹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태권도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버추얼 태권도 발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카이스트와 '태권도 장



태권도원 체험관 입에서 증강현실 콘텐츠인 '가상 태권전'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비 과학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카이스트의 첨단 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한 태권도 과학화 촉진을 대비해 오고 있다. 또한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버추얼 태권도 운영자 자격 과정을 태권도원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 올림픽위원회의 가상 스포츠 확대 정책에도 발맞추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으로 인공지능 관련 전문 연구소와 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